

2025년 7월 3일(목) 수시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부산광역시 보도자료



담당부서 : 기획담당관 지방시대팀

유 형 : 회의

사진유무 : 사진있음 ■ 사진없음 □

과장	윤정 노	051-888-1740
팀장	여영 모	051-888-1813
담당자	이경 우	051-888-1816

부울경 시·도지사 “부울경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”

- ◆ 7.2. 김해에서 '부울경 시도지사 지역 현안 간담회' 개최...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위한 공동 대응 논의
- ◆ 새 정부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 기대
- ◆ 조속한 시일 내 지역 정치권과의 논의의 장 마련 예정

- 부산(시장 박형준) · 울산(시장 김두겸) · 경남(도지사 박완수) 시·도지사들은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.
- 부울경 시·도지사들은 어제(2일) 김해에서 '부울경 시도지사 지역 현안 간담회'를 갖고, ▲지방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▲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 ▲부산-경남 행정통합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.
 - 부울경 시·도지사들은 “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”라며, “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고 강조했다.
 - 이를 위해 “새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,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”라고 언급했다.
- 또한 “부울경의 주요 현안 해결 방안 마련과 공동 협력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조속히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

- 아울러 “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부울경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,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을 통해 시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이를 발판으로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” 이라고 전했다.
- “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부산-경남 행정통합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” 이며, “울산시는 부산-경남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,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 검토하겠다” 라고 덧붙였다.
- 한편,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현재 추진 중인 부산-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공동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.

참고

현장 사진

